**교제와 나눔**

**\*\*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과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ㆍ토요기도회:** 매주 토요일 07시 Teestube

**ㆍ나라주일:** 오늘 2부 예배 후 각 나라별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세요.

**ㆍ말씀카드:** 가족 친지 위한 말씀카드 예배 후에 받으세요.

**ㆍ말씀일기 일정표:**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고 활용하세요.

**ㆍ교회수첩 확인:** 잘못된 것 말씀해 주세요.

**ㆍ2018 KOSTA:** 2월20일(화)-23일(금), 참가비 110유로(다음 주일까지 신청시)

**ㆍ헌금증명서:** 담당-재정부 백능현 집사

**ㆍ****지난 주 출석:** 임동원-김경숙, 한수지, 조휘석-홍지연/예진, 서현

**ㆍ생일축하:** 신일수

**◆말씀일기 일정**

 일/행9:1-9 월/행9:10-19a 화/행9:19b-31 수/행9:32-43

 목/행10:1-16 금/행10:17-39 토/행10:34-48 일/행11:1-18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200독 대행진: 144독)**

**◈예배위원 안내◈**

|  |  |  |  |  |
| --- | --- | --- | --- | --- |
|  | **1월 21일** | **1월 28일** | **2월 4일** | **2월 11일** |
| **예배기도** | 강일구 | 김좌겸 | 박요셉 | 김평님 |
| **말씀일기** | 조선형 | 우선화 | 권순아 | 백능현 |
| **안내위원** | 신형만, 예배부 |
| **헌금위원** | 나지홍, 박성희 |
| **애찬봉사** |  나라 주일 | 밥상 일곱 | 밥상 하나 | 밥상 둘 |

35-3호 2018년 1월 21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골 3:14)

주일 1부예배: 12:15

주일 2부예배: 14:00

주일 유초등부 예배: 14:00

주일 청소년부 예배: 13:30

토요기도회: 07:00

선교성경아카데미(MBA):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담임목사/ 손교훈**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협동목사/ 이광열** Mike Lee

☏ 0211-4166 3284 HP. 0157-7388 7498

**교육목사/ 이재용** HP. 0157-5346 6942

1983년 5월 8일 창립 뒤셀도르프 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

 **교회 주소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주 일 예 배** achtsgottesdienst)**(** **weihnachtsgottesdienst)Weihnacht**

오

인도: 손교훈 목사

|  |  |
| --- | --- |
| ※입례/Eingang …………………………………………………………….........…………………… | 다함께 |
| ※송영/Eingangslied ……………………………………………………………………………… | 찬양대 |
| ※찬송/Gemeindelied ……………………………… 31장 ………………….……………… | 다함께 |
|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 | 다함께 |
| 성시교독/Wechselwort ……………….. 교독문 77번 …………….................. | 다함께 |
| 찬송/Gemeindelied …………......………… 262장 ……………………………… | 다함께 |
| 기도/Gebet …………........………………………………………………............................ | 강일구안수집사 |
| 말씀일기/Bibeltagebuch ……………………………………………….............................찬양/Loblied ......…………………………….......………………………….......…………… | 조선형 집사찬 양 대  |
| 성경봉독/Text zur Predigt …...........… 갈 1:4-5 …..….....……..…....…. | 다함께 |
| 설교/Predigt ……...….….......………....... **대속의 사랑** .......……….......…...…… | 손교훈 목사 |
| 찬송/Gemeindelied ………………………… 143장 ………………………………합심기도/Gebet ……………………………………………………………………………… 봉헌/Kollekte ……………………………………………………………………………………… | 다 함 께다함께다함께 |
|  교제와 나눔/Bekanntmachung …….....................................................…………… | 인 도 자 |
| ※주기도송/Vaterunser ………………………………………......................……………… | 다함께 |
| ※축도/Segen ……………………………………………………………………....................... | 손교훈 목사 |

**※는 함께 일어섭니다.**

**◈ 조선형 집사의 말씀일기 행7:17-36 ‘40세의 모세, 80세의 모세’ ◈**

오늘 말씀에서 공의회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 불려 나온 스데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오늘 말씀 중에서 40세가 된 모세와 40년후 80세가 된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을 묵상해 보았다.

40세의 모세는 그 시대 최강국 이었던 애굽 왕족의 교육을 받은 최고의 엘리트로서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신분의 한계는 있었겠지만 그의 미래는 탄탄대로였고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나이 40에 자신 있게 그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 했지만 그는 그만 애굽인을 죽이게 되고 모든 것을 잃은 채 도망가 40년 동안 광야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은 모세를 철저히 낮추고 훈련시키셨다. 그리고 나이 80세가 되어서 늙고 연약해 보였을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주어 보내셨다.

하나님은 최강국 애굽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으며 40세의 자신감 넘쳤던 젊은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40년간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교육을 받아왔던 80세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보내셨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 안의 젊은 모세와 늙은 모세를 만나게 되었다. 한국에서의 나는 젊은 모세였다. 직장에서는 위로 올라 갈수록 부하 직원들이 많아 지면서 그들이 나의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들을 나도 모르게 즐기게 되었던 것 같다. 모든 인간 관계에서 우위에 서려고 노력했고 또 그렇게 될수록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점점 더 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었던 것 같다.

그러다가 독일에 오게 되었고 내 안의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것 같다. 마치 아기가 된 것처럼 허둥지둥 하던 독일에서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분들의 도움과 격려를 받으며 나는 요즈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그 어느 때보다 의지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지금의 내가 광야에서 방황하며 훈련 받는 모세인지 아니면 아직 40세의 모세인지 확신 할 수 없다. 하지만 때가 차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 40세의 모세가 아닌 80세의 모세로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